

셋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했더라도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온전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진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올해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양 ... 찬361장, 찬327장, 찬438장(중 택1) ... 다 함 께
주 기 도 다 함 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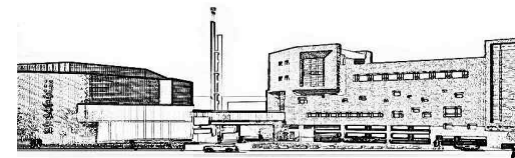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예배 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세요.

- 온 가족이 함께 뒷정리하기
-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 긍정적으로 듣고 말하기
- 함께 손잡고 기도하기

2 0 2 3 설 날 가정예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시50:5, 롬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속초중앙교회

2023년 설날 가정 예배

◎ 인도 / 가족대표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552장, 찬559장, 찬288장 (중 택1)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설날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
서. 올 한 해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
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간에 사랑하며, 형제간에 우애 있는 화목한 가정
이 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디모데전서 6장 11-12절 다 함 께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말 씀 나 눔 말 은 이

2023년 설날 온가족이 모여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
사를 드립니다. 올 해 우리 교회 신년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
소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신 주님을 따라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
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본문에
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학
교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
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
상에서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예배시간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나의 욕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도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세우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